

2011년

4월호

THE Holistic health



4월호

새

권이영

보이지 않는 것에 온몸을 맡기며
새들은 날아오른다
오, 바람 속의 새여
자유자재의 날개여-

오늘 필요한 양식을
오늘 즐겁게 찾아 먹을 뿐
새들은 지상에 먹을 것을 쌓아놓지 않는다

모든 굴레 벗어버리라고
누더기와 지푸라기 훌훌 털어 버리라고
가벼워야 솟아오를 수 있다고
새들은 노래하고 노래하며 맴돌다가
아득한 점으로 사라져 간다

새들의 주검을 땅에서 볼 수 없는 까닭은
죄 없는 그것들을 은밀한 통로로
하늘이 모두 불러들이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것에 온몸을 맡기며
오늘도 새들은 날아오른다

* 권이영 시인

- 월간 <심상> 신인상으로 등단.
- 시집<천천히 걷는 자유>
- 한국시인협회 교류위원장
- E - Mail

email: kwoniyong@naver.com

THE

Holistic health

3 권두언 이견오

무너진 망대에서 보는 교훈

6 마음(영혼)건강 최진기

The Gospel and the Law

(Ephesians 2:8-10)

10 몸건강 정은영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라!

12 전인건강뿌리 조무성

21세기 바보론 : 삶툼일꾼 찾기

바보란 무엇인가? (2)

16 언론으로 본 회원 이대회

(안양샘병원) “성경적 의료철학으로

암환자의 내면까지 치유”

18 회원동정 학회공지

19 갤러리

20 동역단체 한국누가회

지금 온 세계는 일본의 지진과 쓰나미와 원전의 붕괴와 원자력 피해로 인하여 매우 긴장된 상태이다. 이 일을 보면서 일본 사람들의 침착성과 질서유지와 인내하는 긍정적이고 본받을 만한 면들도 소개되어 감동을 준 것도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일본 정부의 긴급 대책과 대응에 대하여는 못매를 가하는 것도 있다.

이번 사태를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인간이 아무리 준비를 해도 자연재해 앞에는 당할 수가 없다는 인간 본연의 절망감이다. 후쿠시마의 쓰나미가 일어난 해역에는 높이 10미터의 방파제를 만들어 놓고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가 되었다고 자부하고 살았지만 우리가 믿었던 그 방파제도 헛된 것 이었다라고 한 여인이 말했다. 쓰나미가 넘쳤던 그 방파제 앞에서 그 곳 주민인 60대의 여성의 어이없어하는 그 표정은 많은 것을 느끼게 하였다.

우리나라도 매우 경각심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어 여러 가지 점검도 하고 가상훈련도 하며 새로운 위협에 대하여 대비하는 모습도 보인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백두산 화산 문제에 대하여 국가간에 논의가 진행되는가 하면 중국의 원전들에 대한 만약의 경우를 가상하여 우려와 심각한 문제성을 국가간에 논의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불안감이 한 사람이나 한 사회 속에 팽배해 지면 인간은 그 불안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연적으로 본능적 방어기전을 발동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원인규명, 원상복구, 향후 예방책을 강구하느라 총체적인 노력을 하고 또한 온 사회가 전문인과 언론을 총동원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디 하나 해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불안은 더욱 증폭되고 사회적 불평과 불만은 하늘을 찌르게 된다

그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군중심리의 발동은 ‘너 때문이야’ 라는 불평의 쓰나미이다.

이는 군중들의 분노처럼 나타나지만 인간 본능의 방어기전에서 오는 반응이라고 해야 될 것이다. 홍해 앞에서 나갈 길을 못 찾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뒤에서 달려오는 애굽 군대를 보았고 또한 그들이 얼마나 잔인한가를 이미 경험한 터이기 때문에 저들은 불안해하고 불평하여 ‘너 때문이야’ 라고 모세를 심하게 비판하고 다시 옛날을 생각하며 그리로 가자고 했다.



이 건 오

전인건강학회 이사

선린의료원장

이러한 불안이 온 세계인의 가슴 속에 퍼져가는 것은 단순히 재산의 손실이나 건물의 파괴로 인한 손실이나 자연의 심각한 훼손으로 인한 손실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인류 공멸의 불안감이 마음 깊숙이 내재되었기 때문이다.

불안의 구조의 핵은 죽음이다. 그래서 모든 불안의 바닥에는 육신적 생명, 사회적 생명, 영적 생명에 대한 보존과 파괴에 대한 감당할 수 없는 염려가 도사리고 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모르는 것이 인간에게 다가오는 불안을 극복하지 못하는 원인임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망대가 무너져 열여덟 명이 죽은 사건을 듣고 제자들에게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러한 불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이 될 것이라고 대답해 주셨다. 이 무너진 망대 위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할 것은 일본 사람이 무슨 잘 못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의 중요한 것은 망대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지게도 하고,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는 것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속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세속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세밀하게는 우리의 머리카락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인정하고 그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당위성을 말해준다. 우리는 지진과 쓰나미의 노도광풍 속에서 하나님의 계심과 통치하심을 볼 수 있다. 욥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자.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욥38:4)?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 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빋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그칠지니라 하였노라(욥38:8-11).”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면 말할 지어다(욥38:16-18).” 이는 온 우주의 주권적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다.

예수님도 친히 불어오는 광풍과 파도를 향하여 바람아 바다야 잔잔 하라 명령하시니 바다가 잔잔해졌었다. 이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우리는 온 우주와 자연 속에서 거기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오늘 하루 내게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본다. 지금 우리는 쓰나미가 몰고 온 불안을 다스리시는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한다.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드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지구촌 쓰나미를 넘어 우주적 쓰나미로 다가오는 불안의 바다를 건너야 한다.

한국 교회의 문제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두려워하지 않는 데에 있다. 우리는 예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도 아무 두려움도 느끼지 않는다. 하나님도 그 말씀도 두려워하지 않는 세계는 하나님께서 그 상태대로 유기해 두신다. 한국교회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거나 특정한 지도자들이 아니라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교회이다. 그러므로 나 개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순종하면 한국교회가 산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자. 나를 생각하고, 나의 가정을 생각하고, 나의 직장을 생각하고 나의 교회를 생각하고 내가 더불어 사는 이 사회를 하나님의 눈 곧 성경의 안경으로 깊이 생각해 보자. 이 민족과 나라와 북한의 상황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자.

무너진 망대 위에서 예수님께서 너부터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라고 말씀하신다.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모든 불안은 사라진다. 그리고 길이 회복의 길이 보인다.

“하나님은 고치고 우리는 봉사한다”

-선린병원홈페이지 이견오 의원원장인사말 중-



최진기

Michael Choi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While post-modern criticism has helped the church to become generally skeptical against the unhealthy naiveté of modernist metanarratives, the price she had to pay was significant because a general climate persists in which the normative standard of the Christian life has been befuddled. It is in part to provide a corrective to this confusion concerning the relationship of grace and law that this article has been written. What good is the law for the Christian if, as Paul declared, the law was powerless to save or justify anyone? Does the then have any value for Christians post New Testament era? Even more puzzling to many Christians is the issue of the law's demand upon us as sinners released from the Mosaic legal system of righteousness? How can we harmonize Jesus statement that he came 'not to abolish the law but to fulfill it' with Pauline declaration that we are no longer 'under the law'? Another common confusion related to this topic is whether the law is opposed to the gospel or the notion of grace now available in Christ. These are some of the questions that will be addressed so that our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the normative Christian life and our aim in living the obedient life becomes clearer.

Can obedience of the law save anyone?

Recently, Krister Stendahl, E. P. Sanders, James D. G. Dunn, N. T. Wright, and others have challenged the traditional evangelical interpretation of the doctrine of salvation held since the Reformation. This new interpretation asserts that Palestinian Judaism of the Second Temple period (i.e., the NT times) did not conceive soteriology as being merit-based, and therefore the gospel preached by Paul was not "justification by faith" that opposed Judaism's righteousness merited by good moral works. The New Perspective claims that this reformation reading of Paul was a result of Martin Luther's uneasy conscience which is not substantiated in the New Testament. While the New Perspective scholars have challenged the church to reexamine salvation as not merely a matter of justification, they have diminished the concept of sin in their exegesis, especially of Paul's epistle of Romans chapters 1-5, have narrowed down on just a few selected passages on Judaism, and ignored many other New Testament passages that clearly points to the gospel as an answer to otherwise merit-based righteousness (Rom. 3:19-25; 4:4-5; 11:6; Eph. 2:8-10; Phil. 3:9).

It is therefore Pauline and to Luther's credit that salvation is indeed by grace alone and by faith alone. Paul simply rejects all attempts of people to save themselves by their works (Eph. 2:8-9).

What can the law do?

John Murray, in his book *Principles of Conduct* (1957) has succinctly summarized what the law can do as follows: (1) Law commands and demands; it propounds what the will of God is; (2) Law pronounces approval and blessing upon conformity to its demands (Rom. 7:10; Gal. 3:12); (3) Law pronounces the judgment of condemnation upon every infraction of its precept (Gal. 3:10); (4) Law exposes and convicts of sin (Rom. 7:7, 14; Heb. 4:12); (5) Law excites and incites sin to more virulent and violent transgression (Rom. 7:8, 9, 11, 13). He also mentions two things which the law cannot do: (1) Law can do nothing to justify the person who in any particular has violated its sanctity and come under its curse; (2) Law can do nothing to relieve the bondage of sin; it accentuates and confirms that bondage (Rom. 6:14).

Someone might say at this point that "if this is true that the law cannot justify us or relieve us from the bondage of sin, what good is the law for us?" This brings us to remember some passages in both Old and New Testament testimony concerning the law.

What value does the law have for the Christian?

In the Old Testament, we are told that the law was given for our good (Deut. 10:13); for our delight (Ps. 1:2); to protect us (Ps. 119:29). In the New Testament, Jesus promised greatness in the kingdom of heaven (Matt. 5:17-19), and said that obedience to him authenticates our love for him (John 14:15). Paul also explicitly states that the law is holy, righteous, and good (Rom. 7:12); and that obedience to the law matters more than all formal acts of worship and ritual (1 Cor. 7:19). In sum, obedience to the law shows the normative standard how the Christian must behave (Rom. 12-16, Gal. 5:13-6:10, Eph. 4-6). But if this is the case, someone can further object and ask, "I thought we are no longer 'under the law' because we are in the new covenant of grace? Is this not true? Are Christians still obligated to obey the law?" This is a fair question because many Christians intuitively recognize that we cannot be antinomians (i.e., who disregard the law) on the one hand but then, on the other hand, Paul clearly uses the expression we are no longer "under the law" Rom. 6:14.

Are we ‘under the law’ in any way?

Here, we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whole of scripture, and realize that Paul uses the phrase “under the law” in more than one instance (just like how “dead” can refer to either physical or spiritual death), and that the context for using the expression, and therefore the meaning of the phrase is quite different. Thus, we must carefully sort out how he uses them in each context. In Romans 6:14 Paul is concerned that Christians “no longer offer any part of ourselves to sin as an instrument of wickedness” and thus the phrase “under the sin” refers to the “domination of sin.” In other words, Paul exhorts Christians that we do not need to yield to the enslaving power of sin.

In Galatians 3:23 Paul is more particular about the law as given 430 years ago (Gal. 3:17) so that we were “under the law,” that is held in custody under the law as the legal system of Moses. And finally, in 1 Corinthians 9:21 Paul explicitly says he is “not free from God’s law but under Christ’s law. These three different uses of the Pauline phrase “under the law” must be harmonized, and then it becomes quite obvious why Paul says in Romans 8:7 that the unregenerate mind does not and cannot submit to God’s law, but a child of God has an obligation to obey our Lord, and that this is possible through the Spirit who dwells in every believer (See also Rom. 13:8-10; Gal. 5:13-14).

Is the Gospel opposed to the law (mutually exclusive)?

Some may think that one can have the gospel without the law, but that would be an utter impossibility. To have no law, that is, no standard whatsoever in the gospel message at any moment would completely destroy the glorious doctrine of forgiveness. And that would be no gospel at all. Perhaps part of the common confusion has to do with our experiences listening to a certain kind of gospel message. For instance, we can say, and rightly so, that a particular sermon was moralistic and lacked content of the enabling grace of God. Contrarily, we have also heard a message which tends toward cheap grace. This distinction we recognize in sermon messages, however, should not be simplistically imposed onto the Bible as if the Old Testament was all about the law without grace, and that the New Testament message was all about grace without the law. This would be a theological distortion and lead to confusing perspectiv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aw and the gospel as if they are mutually exclusive.

In reality, the New Testament ushers in the Kingdom and its set of laws to establish Kingdom righteousness through the coming of the King (Mark 1:15; Matt. 4:23; 9:35; Luke 4:43). On the other hand, the gospel grace was already partly embedded in the Old Testament as our Lord has taught that the Law, the prophets, and the Psalms wrote of Christ (Luke 24:44). Moreover, the terror with which we usually identify the Old Testament law is not absent when the gospel is not obeyed (2 Thess. 1:8) and those who do not love the Lord Jesus Christ will face a curse (1 Cor. 16:22).

Conclusion

While the law was formally given through Moses, the law is good, holy, and righteous because the law simply mirrors the character of God. As adopted children of God we want to obey God's laws, and are able to do this because God has placed his Spirit within us to experience His peace and life. It is therefore the life of the Christian who has a mind set on the Holy Spirit, orienting our thoughts and desires on that which pleases the Holy Spirit (Rom. 8:1-17; Gal 5:22-26). For this reason obedience to the law of God is made possible and much more. Certainly, as we have seen, the unregenerate people seeking salvation by their works was rejected (Eph. 2:8-9); however good works were meant to characterize the adopted children of God (Eph. 2:10) Because we are no longer in bondage to the enslaving power of sin, and no longer limited to our natural capacities but empowered by the Spirit who lives in us, we are can fulfill God's design in making us his workmanship.



정 은 영

고려대학교 보건과학연구소

연구교수

암이란 우리 몸의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변화되어 무한정 증식하는 병이다. 이와 같은 병적인 변화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관여하겠지만 크게 보면 암을 일으키려는 힘(발암력)과 암을 막으려는 힘(항암력)의 균형이 암을 일으키는 힘쪽으로 기울어진 채 오랜기간 지속되는 것이 그 원인이라 하겠다.

영양요법이란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영양학적인 지식을 적용하는 것이다. 즉, 음식이 약이 되게 만드는 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먹는다는 것은 매일, 그것도 여러 차례 해야만 하는 일상적인 일이고 매끼마다 다른 사람이 먹을거리를 정해주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영양요법은 생활요법이라는 특성상 환자 자신이나 가족들의 몫이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실천하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암은 영양과 직결되기 때문에 각각의 암에 따른 구체적인 영양요법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건강한 암환자, 승리하는 암환자가 되기 위한 포괄적인 영양요법에 대해 중요한 몇 가지만을 강조해서 말하고자 한다.

1. 암은 설탕을 먹고 산다!

암세포가 이용하는 연료를 줄임으로써 암의 성장을 늦출 수 있다. 혈당을 일정하게 높이는 식사를 하면서 암을 물리치려고 노력하는 것은 산불을 끄려고 애쓰고 있는데 옆에서 기름을 뿌리는 것과 같다. 과일을 비롯해 달콤한 음식은 아주 조금만 섭취해야 한다. 암을 굶기기 시작하면 암은 행복해하지 않을 것이다.

2. 건강에 좋은 기름을 섭취해라!

생선 기름은 암을 물리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아마기름, 올리브기름으로 샐러드 드레싱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다. 필수 지방의 결핍을 막고 몸에 좋은 기름은 세포막을 채우고 혈당을 낮출 수 있다.

3. 영양실조를 피하라!

암은 소모성 질환이다.

40%이상의 암환자들이 실제로는 암때문이 아니라 영양실조로 인해 사망한다. 암은 식욕을 감소시키면서 칼로리 소모를 증가시킨다. 영양상태가 나쁘면 암과 맞서 싸울 수 없다. 영양실조란 영양의 조화가 깨진 상태를 의미한다. 면역계의 주요 요소인 단백질 뿐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과 같은 미량 영양소도 잘 챙겨서 먹어야 한다. 비타민과 미네랄은 보충제로도 좋고 채소와 야채를 통해서 먹는다면 더욱 좋다.

4. 물을 수시로 마셔라!

우리 몸 안에서 생명에 필수적인 액체를 구성하고 모든 세포들을 감싸는 것이 바로 물이다. 만성적인 탈수는 푸글푸글한 피부, 집중력 저하, 변비, 잦은 감염 등으로 나타나다 결국엔 암을 일으킨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만으로도 암을 예방하고 또 치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5. 채소와 야채는 가까이 해라!

앞서 말한 비타민과 무기질 뿐 아니라 채소와 야채에 많은 식이 섬유는 우리 소화기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암과 싸우고 싶다면 항증식성 인자들이 풍부한 채소와 야채를 많이 먹어야 하며 특히 색이 진한 채소와 야채는 효과가 더욱 좋으니 챙겨 먹어야 한다.

건강한 식생활의 변화가 주는 영양요법은 암치료를 위한 화학요법과 방사선 요법의 독작용을 감소시키고 이를 잘 견딜 수 있게 해 준다. 그러나 암은 단순한 하나의 전신적인 질병만은 아니다.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단지 좋은 영양과 음식보다는 그 이상을 필요로 한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깨우침이라고 생각한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암 환자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보다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암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일어난 가장 귀중한 경험이었다” 라고 말하는 이가 있다. 당신도 이에 동의한다면, 당신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치유를 향해 한껏 나아가고 있다.



조 무 성

고려대학교 교수

고려대학교 건강도시연구센터장

전인건강학회 이사장

암퇴치운동본부 공동대표

바보는 순수한 우리말이다. 멍청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의미한다. 우리말 유래사전을 보면 바보의 어원은 ‘밥+보’에서 ‘ㅂ’이 탈락하여 바보가 되었다고 한다. 보는 울보, 느림보 등과 같은 사람을 나타낸다. 바보는 밥만 먹고 일하지 않고 노는 사람을 의미하며 이러한 사람을 경멸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나 멍청한 사람의 뜻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밥통이라는 말은 바보의 직설적이며 통속적 표현이다. 어원에 대해 다른 견해도 있는데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아이를 팔삭이라고 하는데 팔삭이→바시기→바(약칭)’으로 변화되어 바에다가 사람을 나타내는 접미사 보가 붙어 바보가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보면 좀 모자라는 사람의 뜻이 된다. 따라서 바보의 통상적 의미는 어리석거나 멍청하거나 모자라는 사람이다. 지혜롭거나 똑똑하거나 갖추어져 있는 사람과 대조되는 사람이다.

우리 말에서 바보로 번역되는 영어 fool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판단이나 분별력이 떨어지는 사람, 어리광대, 악의 없이 흐트러진 사람(harmlessly deranged person), 통상적인 이해의 능력이 결핍된 사람의 의미로 쓰인다. 사전에는 정식수록으로 안되었을지라도 인터넷상에 “바라만 보아도 좋은 사람”의 축약형태로 쓰이기도 한다(구교성, 학회 소식지 2-3월호- 9쪽 참조).

어떤 사람이 바보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서 바보의 의미는 큰 차이가 난다.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바보를 판단하는데 대조적이다. 세상에서는 바보를 어리석고 모자라며 멍청한 것으로 판단한다. 즉 욕심을 낼 줄 모르고 힘을 과시할 줄도 모르며 자기의 꾀를 낼 줄 모르는 사람이다. 이와 같이 욕심을 버리고 섬기며 자신의 꾀를 좇지 않는 사람을 세상은 바보로 취급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속에 이러한 바보가 되어서는 안되며 바보의 삶은 시대에 낙오자가 되는 길이라는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다.

성경은 바보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어리석은 자(fool)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 (시편 14:1).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며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을 특징으로 내세운다.

따라서 세상의 기준으로 바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지혜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보가 되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지혜자가 되는 것이다.

기독교인은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바보로 사는 것이 정상이다. 욕심을 버리고 남을 섬기고 자신의 머리를 굴리지 않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자의 삶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보를 욕심을 버리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며 세상을 바로 보는 사람으로 정의해 본다. 로마서 12: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바로 보는 사람(바보)이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세대, 우리가 사는 21세기를 바로 보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 외의 것을 더 사랑하는 세상의 물결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를 분별하며 사는 것이 바로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어떻게 분별하며 살 수 있는가? 변화를 받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며 새롭게 되기 위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고 한다. 이 세대를 본받으면 변화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그 이유는 이 세대는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주의, 돈을 사랑하는 배금주의,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향락주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외식주의에 뿌리박고 있는 욕심을 추구하기 때문이다.(딤후 3:1-5). 이러한 욕심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추구하는 삶 속에는 하나님의 바른 뜻을 찾을 수가 없다. 그 속에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나 기뻐하시는 뜻이나 온전케 하시는 뜻을 발견할 수 없다. 우리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삶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이다(롬 12:1, 갈 2:20).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에 의지하여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삶인 것이다.

첫째, 바보는 자기중심의 욕심을 버리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제자가 되기 위한 자기부인을 누차 강조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신다(마 16:24, 눅.14:27).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곧 제자가 되는 길은 죄된 자아를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평생 사는 것이다.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박은 사람이다(갈 2:20, 갈 5: 24).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중심의 욕심을 철저히 죽이는 사람이다. 최근에 젊은이와 교인들의 존경과 교계의 촉망을 받았던 목회자가 스캔들로 무너진 일이나 해체운동을 촉발시킨 한기총의 선거부패는 예수님의 자기부인의 가르침을 되새기게 하는 대목이다. 자신의 영향력이 강해질수록 그러한 영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려는 세상의 바보들이 한국교회나 기독교 총연합회의 리더들로 뽑혀 자리를 지킬 때 한국교회는 든든히 서갈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 이러한 바보들이 계속 포진하는 것이 21세기 희망이다. 이 세상의 어떤 조직도 바보들을 키우고 이어가지 않으면 변질되고 밟히는 소금이 된다는 것은 최근의 기독교 이슈가 잘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행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세상의 바보들이야말로 교회 및 가정과 국가를 든든히 세워나갈 주춧돌이다.

둘째, 바보는 섬기는 사람이다. 자신이 잘 났다고 우쭐되거나 힘을 과시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겼듯이 섬기는 사람이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중동지방에서 발은 더러움의 상징이기 때문에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상상도 못할 일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언행일치의 삶을 살며 섬김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 예수님께서 제자가 섬기는 사람이 되어 세상에서 말하는 바보가 되기를 원하셨다. 예수님은 왕바보 중의 왕바보였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오리(五里)를 동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십리(十里)를 동행하며 겉옷을 요구하는 자에게 속옷을 주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한다(마 5:39-41). 예수님은 자신을 비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종의 형체로 오셔서 대속물로 드림으로 섬김의 극치를 이루었으니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바보 중의 바보짓으로 이해될 수 밖에 없다(빌 2: 5-6, 막 10:45).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죄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자신의 희생으로 죄인들의 생명을 살리는 이러한 바보는 세상에 없다. 왕바보 중의 왕바보이신 예수님을 그들의 마음에 품고 산 사람들 있다. 김요석 목사는 문동병환자의 환부의 피고름을 입술로 터트린다. 장기려 박사는 걸인에게 거액의 수표를 흔쾌히 내어 준다. 노벨 수상자 마더테레사 수녀는 가난한 환자들이 자신으로 인해 상처 받을 것을 염려한 나머지 좋은 시설을 갖춘 병원에 입원하기를 거부한다. 손양원 목사는 자신의 아들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는다. 이 사람들은 수준 높은 바보이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따라가기 힘든 왕 바보이다. 바보도 수준이 있으며 연속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다. 왕바보와 그와 가까운 바보들이 많을수록 건강한 교회가 되고 국가가 된다.

셋째, 바보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다. 이 세상의 지혜는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은 것으로,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들을 미련한 것들 곧 바보로 여긴다(고전 1:18,21,27).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foolishness)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foolishness)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foolish things)을 택하사 세상의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니..." . 이런 점에서 다니엘이 전형적 예가 된다(단 2: 20, 6: 10) .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 (단 6: 10). 이렇듯 바보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지 않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다. 자신의 행동이 죽음으로 이끈다는 임금의 어인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구했다. 그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것이 체질화 된 사람이었기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세상의 지혜와 능력에 결코 타협하지 않았다. 다니엘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바보였다. 그의 행동은 목숨을 담보로 한 어처구니 없는 바보짓이었다.

넷째, 바보는 바로 보는 사람이다. 욕심을 버리고 섬기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 세상이 바로 보인다. 욕심을 가지고 남을 해롭게 하며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 세상을 그릇되게 진단한다.

탈욕심과 섬김 및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추구는 바로 보는 것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이다. 바로 보기를 원하면 자신을 비우고 예수님을 따라 섬기고 위로부터의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한다. 환자를 진단할 때 정확한 진단은 정확한 처방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진을 하고 처방을 하면 차라리 치료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만 못하기 때문이다. 군대에서 위암인데도 위궤양으로 진단하여 치료하다가 결국 그 젊은이가 이 세상을 떠난 사건이 있었다. Russell Ackoff (1974)는 성공적인 문제해결은 올바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발견하는 것으로 보았다. “우리는 자주 올바른 문제에 대한 나쁜 해결책을 얻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자주 실패한다”고 말한다 (Successful problem solving requires finding the right solution to the right problem. We fail more often because we solve the wrong problem than because we get the wrong solution to the right problem). 그릇된 문제해결(wrong problem-solving)과 올바른 문제해결(right problem solving)은 개인의 문제해결의 성공여부 뿐만 아니라 조직 및 국가의 문제해결의 성공여부에 적용될 수 있다. 전자는 문제를 오진해서 과감하게 추진함으로 부작용을 가져오는 것이고 후자는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서 해결을 추진함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구제역이나 최근 후쿠시마 원전사태 등도 보다 정확한 진단을 했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대목이다.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며 나아가 예측하고 통제하는 목표를 가진 이론(theory)은 그 어원이 그리스어 theoria, θεωρία,에서 나왔는데 그 의미는 쳐다보다(looking at), 숙고하다(contemplation)의 의미를 갖는다. 좋은 이론은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설명해야 한다. 그 중 사회현상을 다루는데 있어 욕심을 버리고 섬기는 태도가 중요하며 특히 기독교학자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그 이유는 이러한 자세가 현상을 바로 보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멍청하고 어리석고 모자란 사람이 바보다. 특히 왕바보는 최고 수준의 바보이다. 이 세상에는 자칭, 타칭 바보의 시각이 있다. 장기려 박사, 노무현 전대통령, 김수환 추기경 등의 경우가 그것이다. 보는 관점에 따라 누가 바보인지 아닌지 그리고 누가 제일 바보인지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나의 바보의 관점은 네가지 기준이다. 욕심을 버리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고, 세상을 바로 보는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이 21세기를 사는 바보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나 자신에게 물어 본다. 나는 바보인가?

이런 바보가 국내외 각 삶의 영역에 어디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가 이러한 바보 특히 왕바보를 얼마나 키웠는지 그리고 그 바보들이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가정, 언론, 예술의 영역에서 욕심을 버리고 바로 보는 사람이 되어 섬기며 살고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언론으로 본 회원

“성경적 의료철학으로 암환자의 내면까지 치유”



기대희 안양샘병원 대표이사가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다. 그는 환자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의사 선생님’으로 소문나 있다. 최중학 기자

국민일보는 내년 창립 40주년을 앞둔 기독교병원협회와 공동 기획 ‘기독교병원 탐방’을 마련했다. 기독교병원들이 지역사회에 어떤 공헌을 해왔으며 의료서비스 선진화를 일궈나가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눈물이었다. 이대희(43·혈액종양내과) 안양샘병원 대표이사는 말을 잇지 못했다. 암 환자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처럼 느껴졌을까. 이 대표이사는 암에 걸린 젊은 가정과 가족들을 언급하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그의 눈물은 환자 치료에 ‘전인 치유’를 강조해온 샘병원의 실체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는 전인 치료를 ‘환자와 함께 걷는다’고 표현했다. 병 자체가 아니라 환자 인생 전체에 뛰어들어 삶을 돌아보고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을 되찾게 하는 것, 그것이 의사와 병원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안양샘병원은 내년 1월 경기도 군포시에 400병상 이상의 글로벌샘통합암병원을 개원, 매머드급 암 전문 병원으로 발돋움한다. 암치료를 포함해 종합병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안양샘병원을 둘로 나눠 중풍이나 심근경색 같은 긴급 질환 치료 등은 안양샘병원이 전담하고, 군포에선 암 치료만 전담해 의료 서비스의 효율과 전문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이 대표이사는 암전문병원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했다.

“첫째, 전인 치유입니다. 인간은 물질적 요소뿐 아니라 내면이 존재합니다. 내면은 몸에 영향을 주고 주변 환경 역시 영향을 줍니다. 병원은 각 요소의 관계성에 주목합니다. 둘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면역 분야는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병원은 암환자 치료에 웃음과 상담, 음악 치료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면역력을 증강시키면서 적절한 항암치료를 병행할 것입니다. 셋째는 기술과 경험을 가진 의료진입니다. 우리 의료진은 항암제를 복강 안에 넣어 복막암을 치료한다든지 정맥이 아닌 동맥을 따라 들어가 일일이 암으로 가는 혈관을 찾아 항암제를 투여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대표이사는 의사의 기술과 경험을 강조하면서 “의료진의 희생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사들이 암 시술을 할 때마다 방사선에 노출돼 머리가 빠지기도 한다”며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의료진 역시 기꺼이 고생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환자와 함께 걸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암 분야 전문의들은 매주 4회씩 환자 치료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이 자리는 담당의사로서 자신의 치료방법을 주장하는 시간이 아니다. 다른 의사들과 함께 최선의 방법을 찾는 데 몰입한다.

이 대표이사는 “자신의 의견을 내려놓고 철저히 환자 입장에서 치료 방법을 찾는다”며 “종합적인 진단 과정이 환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샘병원은 10년 전부터 기독교 병원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환자의 전인 치유, 삶의 질 강조 등은 기독교적 정체성에서 비롯된 샘병원만의 색깔이다.

“샘병원은 성경적 관점의 의료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치료 과정 전체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특정 병을 키워온 위험 요소를 찾으며 환자의 마음과 영적인 문제, 생활습관까지 점검하면서 약물 치료와 함께 삶 전체를 치유합니다.”

샘병원은 암 환자의 경우 무료로 상담을 받도록 하고 있다. 마음을 터치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상담자들은 전문 상담 요원들로 구성돼 있고 목회자도 활약하고 있다. 부설 원목실에서는 상담을 비롯해 말씀과 찬양, 기도를 통해 치료와도 연계한다. 군포암전문병원은 24시간 기도실을 마련해 영혼의 치료까지 병행한다.

이 대표이사는 앞으로 국민 절반이 암 환자가 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며 암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기 보다는 암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고 했다. 그런 측면에서라도 암 치료 과정을 즐길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샘병원은 또 다른 치료방법(second opinion)을 제시하는 병원이 될 수 있다”며 “한 병원의 진단 결과만으로 절망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이사는 1년에 많게는 30회 해외 출장을 다닌다. 의료기술을 배우고 우수한 의사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다. 그는 서울대 내과전문의, 국립암센터 혈액종양내과 전임의를 거쳤고 경희대(의료경영학 석사)와 미국 CFNI신학교를 졸업했다. 안양샘병원에서는 소화기 내과, 호흡기내과 과장을 거쳐 2007년부터 병원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간암, 담도암, 췌장암, 복막전이암, 연부육종, 세포치료 등이 전문분야다.

회 원 동 정

- 박상은 - 한국의료민간단체협의회 대표 선출(4월 5일)
- 박용준 - 한국의료민간단체협의회 공동대표 선출(4월 5일)
- 손영규 - (개원) 프로보노클리닉(의원, 한의원) & 프로보노카페

남부터미널역(지하철 3호선) - 국제전자센터 지하 1층 ☎ 02.3465.0075)

- 조무성 - 한국의료민간단체협의회 자문위원 선출(4월 5일)
- 진웅섭 - 부친 소천(4월 1일)
- 정창덕 - SBS 출발 모닝 와이드 출현(4월 1일)

학 회 공 지

- 학회 수련회 - 5월 27일 . 계명대학교. (구체적인 일정 추후공지 - 이메일 . 홈페이지)

- 춘계 학술대회 - 5월 28일 . 계명대학교. (구체적인 일정 추후공지 - 이메일. 홈페이지)

- 칼럼 모집

마음(영혼), 몸, 사회, 환경의 건강 또는 삶의 질에 관한 자유 주제.

원고 2매 내외. (소식지가 매달 발간되므로 칼럼요청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 회비 (이사회비 - 10만원)

국민은행 . 673601-04-001837. 전인건강학회(조무성)

- 문의

전화 - 02) 544.7991. E-Mail - holisticheal@naver.com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hha.kr/>

소식지 - 홈페이지에 올려짐 (회원 가입하셔야 볼 수 있습니다.)

사진(풍경, 기타) - 홈페이지에 올려질 풍경사진, 기타 사진들을

학회 메일로 보내주세요.

1



2



3



4



5



6



7



8



9



1. 박용준 (창립총회 마치고)
2. 박상은 (창립총회 연설)
3. 이대희 (재경일보)
4. 조무성 (창립총회 축하)
5. 김수지 (출판 사인회)



10

6. 박상은 (창립총회 마치고)
7. 정창덕 (SBS출발모닝와이드캡처)
8. 정창덕 (SBS출발모닝와이드캡처)
9. 박용준 (창립총회 정관 낭독)
10. 조현미 (영파실버홀사랑의집)

소개

• 한국누가회란

한국누가회(Christian Medical Fellowship)는 의료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의, 치, 한의사, 간호사들과 의, 치, 한의대, 간호대생들로 구성된 기독교동체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초교파적이고 복음적인 신앙운동체입니다.

• 태 동

"1980년 초에 시작한 CMF사역, 그것은 15년에 걸친 저의 한국 사역의 핵심이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만큼 감동적인 일이었습니다. 부디 처음에 받은 진리에 항상 거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활에 적용해 진리와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배도선(Peter Pattisson: 전 OMF선교사, 영국) 1980년 당시의 몇몇 의, 치, 한의대의 기독교학생을 중심으로 학생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결성된 자생적 단체이며 1980년 2월 구세군 수양관에서 의대생의 영적 각성과 의료사회의 복음화를 내걸고 69명의 학생들이 모여 첫 대학간 수련회를 가짐으로서 한국CMF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역

• 의료사회 복음화 운동단체로 사역

- 전국 의, 치, 한의대 전도 및 양육 <소그룹 사역- 복음사랑, 의료윤리정책연구모임 등>
- 학생 및 학사 수련회 개최 - 기독교 군의관, 공중보건의 양육
- 의, 치, 한의 학사 양육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 <소그룹 사역- 지역별 모임, 병원별 모임>

• 선교 단체로서의 사역

- 해외 의료선교 기획 및 운영 - 의료선교사 지원, 단기 의료 선교 사역, 의료선교훈련
- 북한 선교, 외국인 근로자 진료, 의료 봉사 및 지역교회 봉사
- 선교사 간사 가족에 대한 진료방 구축

• 기독교 사회활동 단체로서의 사역

- 의료 봉사로 도시 영세민 진료 -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낙태반대 운동 등

• 기독교의료인 전문 단체로 사역

- 정기 회보 및 소식지 발간 : 누가들의 세계, 작은 누가들의 세계, 기타 매뉴얼 제작
- 기독교 의료서적 출판, 홈페이지 운영
- 의료사회변화와 기독교적 관점의 바른 의학 수립을 위한 조사, 연구 및 해결을 위한 활동
- 의료윤리 : 생명윤리모임, 바른 의료사회를 위한 누가들의 모임
- 학술활동 : 성경적의료연구를 위한 누가들의 모임, 기독교 한의학 연구회, 전인건강, 동서의학, 기독교 암 연구회와 기타 전공별 모임 등

• 타선교단체 및 기독교전문인 단체와의 협력 사업

- 학원복음화협의회, 선교한국, 의료선교협회, 기독교학술교육동역회, 기독교학문연구소, 낙태반대운동연합, 여러 비정부기구와의 연합 및 협력 사업

홈 페이지 : <http://www.hha.kr/>
E - MAIL : holisticheal@naver.com

전 인 건 강 학 회

**H O L I S T I C
H E A L T H
A S S O C I A T I O N**

**우리 자신, 가정, 교회, 사회, 환경의
성경적 건강을 추구합니다**

소식지 내용의 저작권은 전인건강학회가 소유합니다.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